

사회

신재생 에너지 사용·생태 연못·숲 조성 ...
광주에 친환경 학교 문 연다

성덕초·장덕중 등 4곳

내년 광주에서 친환경·에너지 절약 학교 4곳이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2011년 3월 광산구 수완택지 지구에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성덕초등학교와 장덕중학교, 북구 첨단과학 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빛을 이용한 신재생초등학교와 빛을 이용한 신재생중학교가 각각 개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설계에서부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시설, 친환경·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예비인증을 받았다.

특히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단열창호 등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했다.

학생들이 친환경 공간에서 휴식과 야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생태 연못·숲을 조성하고 쉼터공간에 정자를 설치했다.

시 교육청이 학교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를 체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할 4개 학교에 조성기로 한 친환경 휴식 공간의 모델.

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여 주는 배려가 작용했다.

또 학습공간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설치되는 등 e-러닝 교육체계에 구축돼 학습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교육청은 향후 신설학교에 전자 도서관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스쿨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학교나 집, 도서관 등 언제 어디서나 학생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활동이 가능하

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목별 전용 교실도 마련돼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수업이 가능하다.

광주교육시설관리단은 학교 신축을 도맡아 철저하게 시공을 감독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이들 학교가 개교하면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하고 교육환경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구청사 활용 고민

층별 용도·임대 배치 따라 임대료 수익 달라

청사 이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을 구성해 세부 계획은 논의중인 남구청사 남구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남구는 청사가 이전될 주일동의 옛 화니백화점 건물의 일부 층을 일반인에게 임대해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층별 용도 및 임대 배치가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구 청사가 이전될 옛 화니백화점(이하 TF팀)을 구성해 세부 계획은 논의중인 남구청사 남구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남구는 청사가 이전될 주일동의 옛 화니백화점 건물의 일부 층을 일반인에게 임대해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층별 용도 및 임대 배치가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사가 이전될 건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두고 TF팀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임대 층을 수요자들의 구미에 맞출 경우 임대 수익을 획기적으로 늘려 상한 기관을 최대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한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고스란히 남구의

재정수입이 된다.

현재 TF팀은 청사 구성과 관련해 총 3가지 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가지 안 모두 지하 1층을 일반에 임대하고, 지상 1층을 종합민원실 및 보건소로 사용하겠다는 점은 같지만 2~9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각 다르다.

첫 번째 안은 당초 세운 계획대로 2층~5층을 구청 및 의회청사로 사용하고, 6층~9층을 일반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반대로 2층~5층을 일반에 임대한 뒤, 6층~9층을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이 두 가지 안을 섞어 각 층의 특성에 맞춰 청사 및 임대 공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남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상당수가 두 번째 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옥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구 청사이전 TF팀 관계자는 "주민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청사의 모습을 꾸며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Kwangju,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charts for various regions, and a 5-day weather outlook for Kwangju.

성·탄·한·파

광주·전남·북 오늘부터 강추위 ... 서해안 눈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와 전남·북에 강추위가 몰려오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광주·전남·북 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24일 오후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며 "26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23일 예보했다.

24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러 출겠다. 24일부터 25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영하 1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4~7도 가량 낮은 전망이다.

24일부터 25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북 5~15cm, 전남 남해안 2~7cm이며, 강수량은 전북 5~20mm, 광주·전남 5~10mm, 전남 남해안 5mm 미만일 예정이다.

이번 추위는 27일 낮부터 점차 풀려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양승훈기자 yang@kwangju.co.kr

정시모집 하향지원 뚜렷

경쟁률 국립대 떨어지고 사립대 올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주요 영역의 커트라인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향 지원 추세가 2011학년도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 정시모집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전남대와 순천대 등 국립대의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약간 떨어졌으나 사립대학의 경쟁률은 올랐으며, 비인기학과 지원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전남대가 22일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쟁률이 평균 3.87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이 4.2대1인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이 하향 지원을 많이 했다. 순천대도 경쟁률이 지난해 3.92대1에서 올해 3.84대1로 소폭 내려 앉았다.

조선대는 23일 원서접수 마감 결과 경쟁률이 4.5대1로 지난해 4.0대1보다 소폭 상승했다.

광주여대는 최종 경쟁률이 5.86대1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호남대와 광주대도 배 가까이 경쟁률이 뛰었다. 호남대는 4.5대1(지난해 2.4대1), 광주대는 5.02대1(지난해 2.6대1)을 기록했다.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원서접수를 한 동산대는 경쟁률이 4.2대1(지난해 3.5대1)을 기록했다.

남부대는 2.44대1(지난해 2.29대1)을 기록했으며, 광주교육대는 2.29대1(지난해 2.25대1)을 기록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회순경찰 '수사민원 비포 서비스'

회순경찰(서장 안병호)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수사민원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 다짐대회'를 갖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의지를 다졌다.

회순경찰(서장 안병호)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수사민원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 다짐대회'를 갖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의지를 다졌다. '비포 서비스'는 모든 민원사건의 진행 및 처리일정을 알려줌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문대도 내년부터 '교육인증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학이 학사관리, 산학협력, 학습지원 등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심사할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를 5년간 지정한다

고 23일 밝혔다.

전문대학교협회는 5가지 필수평가요소와 9개 일반평가기준에 따라 145개 전문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인증심사를 한다. 인증심사가

끝나는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화자금 대출,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인증결과가 반영된다.

전문대학교협 인증기준 중 필수평가 요소는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KBC Kwangju Broadcasting Cultural Program '겨울방학 신나는 해외여행' (Winter Vacation Exciting Overseas Travel). It features a scenic background of a tropical beach and a pagoda, with text detailing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